

## 2010 한국건축문화대賞 작품공모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賞 작품공모 일정이 발표됐다. 올해로 19회 째를 맞이하는 '2010 한국건축문화대賞' 작품공모는 준공건축물과 계획건축물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준공부문은 2008년 5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 사이에 국내에 준공완료된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賞에 출품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은 증축·개축·대수선에 한하여 응모 가능, 임시 사용 승인 건축물 응모불가)

응모자격은 출품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대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 각 1인이다. 또한 계획부문의 올해 주제는 "회귀:본연으로의 회귀 Return to Nature"이며, 제시된 주제를 적용한 미발표 창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계획부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준공부문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후(6월 7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8일(화)부터 6월 9일(수)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포트폴리오 1부(A4), 작품사진·기본도면·작품개요/설명 등이 수록된 DVD 1매 등이다. 준공부문은 1차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추후 2차 현장심사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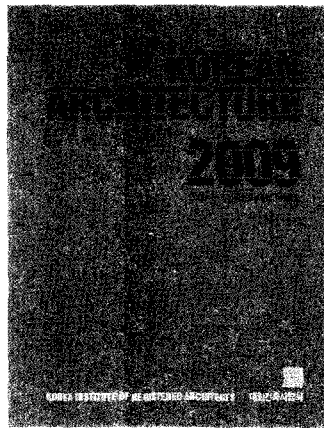
계획부문은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한 후(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1차 심사 제출내용을 접수(방문 및 우편)하면 된다. 1차 심사 제출 기간은 6월 10(목)부터 6월 11일(금) 18시까지이며, 제출내용은 작품계획안(A2/가로

42.0cm×세로59.4cm/중방향 구성) 1부와 작품설명서 1부(A4 1매)이다.

대상 사무국은 해마다 1차 심사내용 제출 마감이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마감 시간 이후의 접수는 일체 받지 않을 방침으로, 신청자들이 마감시간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2010 한국건축문화대賞은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대한건축사협회가 주관한다.

- 문의: 한국건축문화대賞시행위원회 02-3415-6862~4 / kaa.kira.or.kr

## 작품집「KOREAN ARCHITECTURE 2009」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賞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 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 원에 판매한다.

- 문의: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 건축계소식

### 이연구 교수, 대한건축학회 신입회장 당선



이연구 교수가 대한건축학회 신입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건축학회는 제34대 회장 및 부회장 선거를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개최했으며, 전체 유권자 3,346명 중 2,419명(투표율 72.3%)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기호3번 이연구 교수(중앙대)가 신입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100% 전자투표로 이뤄졌으며, 인터넷이 능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안내 후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부회장은 총 6명으로, 서울대 이현수 교수, 광운대 이원호 교수, 단국대 김희서 교수, 호남대 이세준 교수, 강원대 박경립 교수, ITM Group ITM Corporation 양지수 사장이 당선됐다.

당선자의 임기는 2년이며, 4월 23일 정기총회(장소: 서울산업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 문의: 대한건축학회 02-525-1841, www.aik.or.kr

### 금호 화요일아카데미 건축 강좌

금호미술관은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강사진을 통해 고전과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복합문화예술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이다.

2010년 화요일아카데미 강좌는 한국화 이야기, 도니제티의 오페라로 본 오페라의 이해, 여행을 통한 동서양 건축이야기, 그리고 동시대 현대미술의 현장 이야기까지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여행을 통한 동서양 건축이야기는 건축 평론가 이용재가 총 4회(4월 27일 단종, 5월 4일 송시열 유배지, 5월 11일 추사고택, 5월 18일 종묘)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회화와 현대미술, 클래식음악, 현대건축 등 미술, 건축 음악을 아우르는 수요아카데미에서의 건축 강좌는 김현(스튜디오 어싸일럼)씨가 2회(4월 21일 현대문화와 건축1, 4월

28일 현대문화와 건축2)에 걸쳐 준비 중이다.

• 문의 02-720-5114

## 2010 제29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

제29회 대한민국건축대전 일반공모전 접수 가시작됐다.

올해는 '소통의 도시'라는 주제이며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는 4월 19일(월)부터 5월 14일(금)일까지며, 1차 작품접수는 6월 21일(심사 발표: 6월 25일), 2차 작품접수는 9월 13일(심사 발표: 9월 14일)이고, 9월 16일 3차 공개심사를 통해 9월 17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시상식 및 전시회는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

시상에는 대상 1점에는 한국건축가협회 상장, 상패, 상금 500만원이, 우수상 3점에는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200만원이, 특선(약간점)에는 상장, 상패 및 상금 각 100만원이, 입선(다수)에는 상장 및 상패가 주어진다.

신청은 한국건축가협회 공모전 홈페이지(<http://convention.kia.or.kr>)를 통해 하면 된다.

• 문의: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 KCC, 폴리실리콘 양산 본격화



KCC가 연산 6,000톤 규모의 폴리실리콘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들어갔다. KCC는 2월 23일 오전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산업단지에서 정몽진 KCC그룹회장 및 김성수(쥬케이에이엠(KAM)사장, 국내외 협력업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죽 폴리실리콘 공장 준공식을 갖고, 태양광 및 반도체용 웨이퍼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생산에 본격 나섰다. KCC 대죽 폴리실리콘 공장은 지난 2008년 7월 착공돼 1년 6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지난 2008년 2월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선언한 KCC는 이미 같은 해 7월, 독자기술로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에 성공해 장기 공급계약체인 미국 SPI(Solar Power Industries)사 등에 공급해 왔다. KCC는 이번 대죽 폴리실리콘 공장 준공으로 안정적인 제품공급 기반을 갖춰 생산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품질 면에서도 '일레븐-나인(99.99999999%) 수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생산기술력을 갖추고,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KCC는 세계적인 품질과 생산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세계 메이저기업들이 과점 해오던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생산업체로 도약하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KCC는 미국 SPI사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및 해외 주요업체들과 대규모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화석에너지 고갈과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태양광 산업의 성장으로 폴리실리콘 수요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폴리실리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몽진 KCC그룹 회장은 "KCC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실리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화학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최첨단 신소재산업인 실리콘 사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기술주자를 집중해 왔다"라며, "이번 대죽 폴리실리콘 공장 준공으로 유기실리콘 분야에 이어 세계 주요메이저기업들이 주도하는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생산규모와 제품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세계 TOP 업체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의: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 KCC,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인조잔디 '스포필드' 개발



KCC가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인조잔디 'KCC 스포필드'를 개발했다. 스포필드는 단 일구조섬유의 형태로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극대화 했으며, 탁월한 파일 복원력으로 슬라이딩과 스파이크 회전시 부상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최적의 경기력을 확보해 준다. 여기에도 특수 이중구조의 기포사용으로 배수가 탁월하고 친환경 칩 사용 등으로 '인조잔디 신뢰성 평가 기준(RSM 0041)'을 충족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조잔디는 잔디 모양을 하고 있는 파일과 잔디 사이에 삽입된 충전재로 나눌 수 있다. 파일 소재로는 내구성이 좋은 폴리에틸렌(PE) 소재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경기장의 용도에 따라 폴리프로필렌(PP), 나일론과 같은 소재가 사용되기도 한다. 충전재로는 스티렌-에틸렌-부틸렌-스티렌(SEBS) 소재의 친환경 사출 성형된 칩이 사용되고 있고, 페타이어를 재활용한 칩은 현재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렇듯 인조잔디는 여러 번의 진화를 거쳐 이제는 화상 위험과 환경오염, 유해성과 같은 각종 논란을 벗어나고 학교 운동장, 게이트볼장과 같은 각종 생활체육시설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시장 규모도 2009년 기준으로 약 2,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포필드가 그 자체로서뿐만 아니라 KCC의 관련 제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점이다.

인조잔디는 주로 운동장에 많이 적용되는데, 그 주변은 주로 육상 트랙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에 KCC에서 생산하고 있는 육상 트랙과 각종 코트용 우레탄 바닥재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면 인조잔디 또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육상 트랙용 우레탄, 칩 바인더를 이용한 각종 포장재,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자전거 전용 도로용 아크릴 도로 등과 접목하여, KCC는 생활체육시설용 종합 자재 브랜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